

보도시점 2025. 6. 23.(월) 9:00 (2025. 6. 23.(월) 석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본격화

- 기아, 오토큐 협업 훈련, 전국 11개 기관에서 훈련 실시, 채용 연계도 기대 -

고용노동부는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해 기아, 오토큐(한국종합오토큐연합회,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와 협력하여 개발한 산업구조변화 등 대응 특화훈련의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과정’을 전국 11개 직업훈련기관에서 본격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7일 고용노동부, 기아, 오토큐 간에 체결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장 실무 중심의 직업훈련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 ▲ 오토큐 내 정비인력 약 500명 이상 부족(기아 자체 조사)

▲ 전체 자동차산업 부족 인력 중 61%가 전기차 등 미래차 정비인력(한국자동차연구원)

이번 훈련과정은 기아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여 현장성을 높였으며, 배터리, 모터 등 교육용 정비 부품과 훈련기관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완성차 실습 교보재를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이번 훈련은 ‘과정평가형*’으로 설계되어, 훈련을 충실히 이수하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오토큐 채용 시에 2년 경력에 준하는 ‘사내 기술자격 레벨 1’이 부여될 예정이다.

* 특정 자격 분야에 맞게 설계된 직업훈련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치면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

훈련 수료생의 취업 연계도 강화한다. 오토큐 등 주요 차량관리센터에서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채용 행사를 진행하고, 우대 채용을 통해 훈련성과가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훈련비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액 지원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월 31.6만 원의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훈련 신청은 ‘고용 24’(www.work24.go.kr)를 통해 가능하며, 구체적인 훈련기관과 운영 일정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 중인 자동차산업 현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재 양성이 이번 훈련의 핵심”이라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훈련을 지속 발굴·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훈련과정 개설 기관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책임자	과 장	조형근 (044-202-7307)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용욱 (044-202-7311) 최승현 (044-202-7368)



붙임**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훈련과정 개설 기관**

연번	훈련기관명	주소	훈련인원 (연간)
1	부천직업전문학교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53번길 8	15
2	쌍용직업전문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53번길 8	24
3	그린자동차직업전문학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417번길 51	90
4	부산자동차직업학교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245번길 9	23
5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21	40
6	울산미래자동차직업전문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29	20
7	(재)이찬경북직업전문학교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로20번길 28	24
8	(재)대성직업전문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96	40
9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첨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02	40
10	현대직업전문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61-3	30
11	대덕 자동차직업전문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10	15